

> '열린 의회·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19일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달성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1년  
'시·도의회' 활동상황

제5대 대구시의회와 제8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도의회는 시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외기관으로서 크고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시도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11 세계육상대회 적극 지원”

## 대구시의회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통해 7월 출범한 제5대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의 지난 1년간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진 기간이었다.

29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이 초선의원인 제5대 의회는 초선의원 9명이 수초회를 구성, 공부하는 의원상을 구현해 나가면서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 예산 회계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방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 고유기능 중에 하나인 의안처리여 있어서는 조례 제·개정 59건, 예산·결산 9건, 동의·승인 14건, 청원 및 규칙 제·개정 2건, 건의·결의 3건, 기타 39건등 12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대회유치를 위한 국회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점과 입법정책담당관실 확대개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구성, 의원개인사무실 설치와 청사 재배치 등은 역대 시의회와 차별된 노력이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대형공사 현장, 민원현장, 도시계획관련 현장, 시 산하 사업소 등을 방문해 시민의 불편사항 파악과 취약지 안전대책,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지 감사 및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동대구IC 원상복구 관련 등 70여건



장경훈 의장.

의 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장묘운영센터, 두류수영장, 대구경북연구원, K2비행장, 일선 소방서, 유통단지센터,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 현장 등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뒀다.

교육사회위원회는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 육성, 관광 및 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과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보건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유능한 인재 양성과 학교급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최우선과

제를 뒀다. 경제교통위원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집체된 지역경제 회생, 신산업 동력 창출, 도시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증대,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주력했고, 건설환경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낙동강상수원 퍼클로레이트 오염 사고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시민권익과 도시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여부 등에 대한 집중 감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다. 유일한 3선인 강황 전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점과 활동이 저조한 일부의원들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 활동으로 건전재정 운영 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당부했다.

장경훈 대구시의회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의 목표 아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및 미래 산업 육성, 봉무산업단지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DGIST 건립등 대구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